

“혁신도시, 한전 중심 스마트에너지 도시로”

오늘 ‘혁신도시·원도시 상생 발전 토론회’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생태자원 혁신 동력 혁신도시-원도시 연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집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核)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만드는 것, 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 상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 방향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중점을 뒀던 ‘시즌 1’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점이자 원도심 등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7일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혁신도시·원도시 상생발전 토론회’는 이같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나주시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향’, ‘혁신도시·원도시 상생발전 모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나주혁신도시를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에너지’ 도시로 만들고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도시 정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역융합프로그램과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배우자 취업 여건 등을 마련, 오는 2022년까지 가족동반이주율을 58%(2017년)에서 75%까지 끌어올리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70점(2017년 52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요구를 반영한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

겠다는 입장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16개 이전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해 ▲스마트그리드(한전 등 3개 기관) ▲스마트콘텐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6개 기관) ▲스마트푸드(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 등 3개로 나눠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또 지역 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 목적법인인 가정 나주발전연구소를 설립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6개소 이전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형태로 5년간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해놓았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계획 계약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을 감안한 조치로 받

아들어지고 있다. 윤대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다른 지역 사례 등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강조할 계획이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왜 나주혁신도시인가? 문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나주스마트생태문화도시 발전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나주의 경우 풍부한 역사문화유산, 보존이 잘되어 있는 생태자원, 장인의 전통적 기예, 혁신도시 이전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심 교수 입장이다.

심 교수는 또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프라이부르크나 꾸리찌바의 모델을 넘어서서 ‘스마트생태문화예술도시’로의 새로운 발전을 전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나주 혁신도시·원도시 상생발전 모델’을 통해 원도시 공동화 문제나 이종도시화 문제를 언급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시를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나주시 인구는 11만313명으로 지난해 12월 말(11만110명)보다 늘어났고 혁신도시(빛가람동)도 1월 말 기준 2만8517명으로 지난해 말(2만8266명)보다 증가했지만 원도심은 감소 추세다.

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혁신도시·원도시 간 상생발전 플랫폼 역할을 할 ‘스마트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공공기관별로 추진되는 지역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한 ‘혁신도시·원도시 상생발전 전략수행기관’ 설립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송재호 위원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설 명절 ‘사랑애 떡국나눔’ 봉사

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과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는 6일 설 명절을 맞아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한전 노사합동 봉사단은 노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15대를 지원하고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나눔 행사도 가졌다. ‘사진’ 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나주에 소재한 부활의 집과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시설에 각각 나주사랑상품권 200만원씩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전이 적잖은 ‘지역 사랑기금’에서 집행됐다. 이 기금은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

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활용하고 있다. 한전은 봉사 한빛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빛가람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만6050명이 관람했다. 영화를 관람한 주민 1명당 3000원씩 한전 직원도 모금하고 회사가 기부금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 총 4815만원의 ‘지역사랑기금’을 적립했다.

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한전이 본사를 이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도움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최철호 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

사학연금공단, 퇴직예정교직원 대상 설명회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호남지부는 지난 5일 나주본부회관 세미나실에서 호남지역 퇴직예정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예정자가 알아야 할 퇴직급여 청구 안내와 연금수급자에게 유용한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세

무(양도·증여) 관련 강의로 진행됐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가 퇴임 후 안정적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객니즈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관엽류 10대 전략품목’ 선정·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6일 관엽류의 경매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유사시장 등으로 기울어진 시장을 제도권 경매장으로 연착륙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엽류 10대 전략품목’을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관엽류는 총 생산액의 25%가 경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75%는 경매시장이 아닌 영농조합법인 집하장이나 유사시장, 수집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권 경매 시장 점유율이 절하나 난 등 타부류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aT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

해 관엽류 1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유치·분산해 출하능력의 안정된 판로제공 및 경매가격을 지지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권 중도매인을 통한 원활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농가와 중도매인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10대 전략품목은 카랑고예, 장미, 국화, 아이비, 수국, 선인장, 파라고늄, 시클라멘, 베고니아, 호아 등으로, 우수품질이 보증되는 품목별 A급 생산능가 각 2농가씩 선정해 경매장에 집중 출하시킬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 전문성·정책 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전략팀 신설... 인적쇄신도 단행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에 휘말려 휴역을 치렀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이 지원부서의 전문성과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대내외 요구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2일자로

8본부, 1국, 1단, 1실, 30팀을 8본부, 1국, 2단, 2실, 30팀으로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콘텐츠진흥1본부 산하 팀 단위로 있었던 게임과 방송 지원부서를 각각 게임본부와 방송본부로 승격하고, 콘텐츠진흥2본부의 명칭을 대중문화본부로 바꾸면서 장르별 지원부서를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애니캐릭터산업팀을 애니메이션산업팀과 캐릭터산업팀, 음악패션산업팀을 음악산업팀과 패션산업팀으로 각각 나누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차세대콘텐츠팀을 뉴콘텐츠팀으로 재편해 문화기술본부로 배치하고 정책본부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또한 해외 사업 관련 부서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부원장 직속으로 공정상생지원단과 지역콘텐츠진흥단을 만들었

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대외협력실을 신설 본격적인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원사업 구조 및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 과감한 인적 쇄신도 단행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19%에 그쳤던 여성 보직자 비율을 30%로 높이고, 팀장 이상의 보직자를 48% 가량 교체해 신규 보직자를 대거 발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추천) 무안콘도

무안 망운 리조트
광주에서 40분

최고물건
임대(월1,500만 가능)

토지 744평
건물 290평
(아파트형, 객실 28개)

경매일 : 2월 26일

감정가 23억
최저가 12억8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2월초 개강)

-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① 화순군 도곡면 (무인텔) 감정가 38억7천 → 최저가억4천 1천
- ②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가 32억2천2백 → 최저가 14억 토지:1105평 건물:201평
- ③ 북구 문흥동 중흥아파트(24평) 감정가:1억3천3백 → 최저가:7천5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 1)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토지:1004평 건물:750평 감정:3억2천4백 → 최저:2억2천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 3) 광산구 수원지구 (근린주택) 감정 7억2천 → 최저 7억2천
-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 7) 남구 월산동 (근린주택) 감정:9천6백 → 최저9천6백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 9) 광산구 수원동 (주차빌딩) 감정 9억3천 → 최저 6억5천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 1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임야) 토지:3306평 감정:3억1천 7백 → 최저:1억7천7백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④ 남구 진월동 한신아파트 (34평) 감정 1억9천5백 → 최저 1억 3천6백
- ⑤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⑦ 광산구 수원동 대반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⑧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 ⑪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⑫ 광산구 박호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